

## 日本에 있어서의 李退溪 研究\*\*

宇野哲人\*

日本에서 李退溪의 사상 학문을 최초로 깊이 연구한 사람은 山崎闇齋(1618~1682)다. 庵齋는 처음 禪僧이었으나 還俗하자 곧 李退溪의 『自省錄』을 읽고 크게 감격하였으며, 뒤미쳐 『朱子書節要』 『朱子行狀注』를 읽었고, 마침내 『退溪文集』을 입수해서 독과하였다. 그러므로

朱書を 抄出한 것은 많다. 그러나 아직 퇴계의 節要和 같은 것을 볼 수 없다. 朱子行狀의 退溪集註 또한 考索이 가장 精緻하다. 朱子서절요는 李退溪가 평생의 정력을 여기에 쏟았다. 退溪文集 49권을 읽었다. 진실로 조선의 일인자다.

라 하여 李退溪와 그 저서를 높이 평가하였다.

闇齋는 朱子の 全저술은 말할 것도 없도 元明시대의 儒書を 널리 섭렵하였으나 그 중에서 李退溪를 특히 朱子の 뜻한 바를 뜻하고 朱子 사상의 정수를 발휘한 眞儒로서 존경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闇齋의 門流에서는 모두가 李退溪를 연구하였으나 그 중에도 崎門 三傑의 한 사람인 佐藤直方(1650~1719)은 가장 李退溪의 학문에 共鳴하여 「그 학식의 다다른 경지가 元明諸儒의 類가 아니다」 「조선의 李退溪 이후에 이 도를 負荷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나는 아직 듣지 못하였다」라고까지 推賞하였다.

\* 전 東京대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창간호(1973) 게재논문

따라서 左藤派의 문류에서는, 이를테면 村土玉水처럼 李退溪의 서한 가운데 精要를 뽑아서 『李退溪書抄』 10권을 選述한 사람도 나타났으며, 또 稻葉迂齋 일파처럼 『朱子書節要』의 윤독을 그 학칙 가운데 규정하는 사례도 나타났던 것이다.

이상의 山崎闇齋파와는 따로이 熊本에 大塚退野(1677~1705)가 나타났는데, 이 退野은 李退溪의 『自省錄』을 읽고 초연히 자득하고 『朱子書節要』를 精研하기를 40여년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그 批點을 가한 『朱子書節要』가 國土館大學에 傳存해 있거니와 그 心解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이 大塚派은 아마도 山崎派 이상으로 李退溪를 존신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의 문인 藪孤山은 「百歲토록 朱子の 뒤를 잇는 이는 退溪 그이다。」라 하였고 幕末의 英傑 横井小楠에 이르러서는 元明시대를 통하여 「古今絶無의 眞儒」라고까지 절찬하였다.

이와 같이 李退溪는 특히 山崎派나 大塚派에게 높이 평가되었고 그의 사상 학문이 깊이 연구되었다. 李退溪의 주요한 저술도 거의 모두 日本 어훈을 달아서 刊刻되었다.

이와 같이 李退溪는 江戸시대의 초기부터 日本 학자의 깊은 연구와 존경을 받아 왔다. 그것은 李退溪가 공자, 朱子の 說示한 바 修己治人の 길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켰을뿐 아니라 몸소 그것을 實踐躬行한 眞儒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朱子 이후에 뛰어난 학자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그러나 李退溪처럼 공자, 朱子の 입교의 원점에 되돌아가서, 修己治人の 도의 정수를 深切하게 說盡한 儒者는 드물다. 학문 수양의 목적과 방법을 간절하게 명시한 사람은 드물다.

山崎派과 大塚派의 학문을 이어 받은 幕末 明治初의 학자 楠本端山이 「淸의 陸稼書는 張楊園에 미치지 못하고, 楊園은 퇴계에 미치지 못한다. 明의 薛敬軒·胡敬齋 또한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였거니와, 이는 李退溪에 대한 日本 여러 학자의 평가를 계승하고 나아가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한 말이라 하겠다.

李退溪는 이와 같이 깊이 연구되고 높이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明治

시대의 교육방침 결정에 즈음하여서도 간접적이기는 하나 영향을 미쳤다. 즉 明治의 교육방침 확립에는 熊本 출신의 元田永孚의 힘이 컸었는데, 元田은 李退溪의 학을 가장 존신한 大塚退野의 學을 올바르게 이어 받은 사람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李退溪의 교육사상은 明治의 교육사상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한데 明治의 중기 이래로 서구의 철학 또는 철학사 연구법을 동양의 철학과 철학사 연구법에 적용하는 학풍이 점차로 발흥하여 오늘에 이르렀거니와 이 연구법을 써서 조선 儒學을 밝힌 제일인자는 옛날의 경성제국대학 교수 高橋亨박사다. 同박사가 1929년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회편 「조선 支那 문화의 연구」에 발표한 「이조 儒學사에 있어서의 主理派・主氣派의 발달」이라는 140면에 이르는 논문은 李退溪과 이율곡과의 理氣철학 논쟁을 精細하게 분석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李退溪 이율곡을 정점으로 하는 조선 儒學을 연구하려는 학자에게는 필독의 문헌이다. 부언하거니와 이 논문집은 지금까지 입수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최근 日本에서 복간되었다고 듣고 있다.

그리고 또 高橋박사는 1939년에 「李退溪」라는 논문을 잡지 『斯文』 제21편의 11월에서 제22편 3월호까지 113면에 걸쳐서 연재함으로써 李退溪의 인격과 학문에 관해서 상세히 소개한 이외에, 同박사의 조선 儒學에 관한 수많은 논문 중 도처에 李退溪에 관해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高橋박사와 같은 시대에 조선총독부의 松田甲씨는 1926년부터 1930년에 걸쳐서 「日鮮史話」 6편을, 그리고 1931년에 「續日鮮史話」 3편을 저술하여 주로 江戸시대에 있어서의 日鮮 양국의 학자, 시인, 승려들의 교류 史實을 탐색하고 소개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李退溪의 學流를 돌이켜보고 日本 朱子학자의 李退溪관, 李退溪의 유적, 도산서원의 추억, 「교육에 관한 勅語」와 李退溪 등, 李退溪에 관한 논문 수편이 한 책으로 엮여져 있다. 「教育勅語」가 李退溪에 연원한다는 同씨의 설은 약간 비약한 설이기는 하나 그러나 大塚退野과 李退溪와의 관계를 밝힌 점은

가치가 있다.

상기의 高橋, 松田의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李退溪의 연구에 있어서, 그리고 李退溪를 중심으로 한 조선 儒學의 日本에 대한 영향의 연구에 있어서,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 阿部吉雄박사다. 阿部박사는 東京대학을 졸업한 직후 나의 연구조수로서 山崎闇齋의 연구에 종사한 일이 있다. 그 후 경성대학에 부임하게 되어 거기서 山崎闇齋와 李退溪의 사상적 관계가 지극히 농후한 사실을 발견하고 銳意 그 문제의 해명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경성대학 「法文學部紀要」의 1책으로서 「山崎闇齋와 李退溪」라는 一書を 인쇄에 붙이고 교정과 검인까지 마쳤었으나, 그 발행 예정일이 日本 패전일에 마주쳐서, 마침내 교정본과 원고를 송두리째 접수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책을 탈고한 후에 그 요점을 평이하게 간추린 『李退溪』라는 一書가 다행히 東京의 文教書院에서 日本教育先哲叢書의 제23권으로서 1944년 4월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전쟁 말기의 출판이었던 까닭에 발행부수도 적었으나 내외의 주목을 끌어서 이듬해엔 朱謙之의 『日本的朱子學』 등에 인용되고 있다.

阿部박사는 日本으로 돌아온 후 다시 日本 朱子학의 발달과 조선 儒學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수시로 논문을 발표해 왔는데, 마침내 그것을 묶어서 『日本朱子學と朝鮮』이라는 大著를 1965년에 東京대학 출판회에서 간행했다.

이 책은 日本의 근세 儒學을 일으킨 藤原惺窩, 林羅山, 山崎闇齋의 사상 성립에 조선의 儒學, 특히 李退溪의 학문이 어떻게 영향했는지를 많은 새 자료를 발견함으로써 정밀하게 실증한 것이다. 그리고 山崎闇齋의 철학에 李退溪의 철학이 어떻게 깊이 수용되었는가를 精細하게 분석해서 양자 철학의 근본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江戸시대 300년간에 李退溪의 저술이 어떻게 출판되었는가, 어떠한 학자로부터 평가되었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明細하게 밝혔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朱子の 理氣철학의 근본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구조를 해명하고 후세에 主

理派, 主氣派 두 과로 분해한 철학사적 사실을 탐구하여, 李退溪를 主理派의 驍將, 明나라의 羅整庵을 主氣派의 首唱者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또 양자의 저술이 다같이 임진난을 계기로 日本에 전해져서 日本의 朱子학과를 형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출현으로 江戸시대의 儒學은 조선의 儒學 특히 李退溪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음이 명료해졌다. 그리고 또 한 마디로 朱子學派라 하지만, 그 중에도 주장과 철학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더욱 뚜렷해졌다. 李退溪가 널리 아세아 儒學사에 차지하는 지위도 비로소 명백해졌다. 그 외에 여러 방면에 있어서 여태까지 학계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여러 가지 점을 밝히고 있다. 이제부터의 李退溪 연구, 日本 儒學사 연구, 근세 日韓 관계사 연구 그리고 朱子연구, 儒學연구는 이 저술을 출발점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阿部박사는 이 책을 보정하는 뜻에서 수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거니와 그 가운데 「韓日中 삼국 儒學의 발전을 비교하여」(1966년 東京支那學報 12)와 「日本儒學의 발전과 李退溪」(1972년 『韓』誌 8월호)는 가장 체계적인 것이라 하겠다. 특히 전자는 동방학회 발행의 ACTA ASIATICA 19호에 英譯되어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그리고 阿部박사는 이제 舊著인 『李退溪』를 새로 써서 評論社에서 출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李退溪 『自省錄』에 주해를 달아서 明德출판사로부터 中國古典新書의 一冊으로서 출판하고 동시에 同社에서 기획하는 『朱子학대계』 가운데 李退溪 文集抄, 이율곡 文集抄를 넣어서 해설하려고 한다. 특히 동경의 李退溪 연구회의 사업으로 日本에서 출판된 李退溪의 전저술을 影印, 출판하려고 기획 중이다. 大塚退野이 오랫동안 『朱子書節要』에 침잠해서 圈點을 찍은 그 원본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影印해서 널리 학계에 소개한다면, 朱子학 연구, 李退溪 연구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바이다.

(이 인 기 譯)